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pp. 2749-2757, 2014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749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경험, 학부모의 고정관념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미혜[1*]
[1]그리스도대학교 계약학부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Experience, Parents' Stereotype on Multicultural afficac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e-Hye Park[1*]
[1]Department of Contract Education, Korea Christia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학부모의 고정관념과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경험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학부모와 초등학생 27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응답결과, 첫째,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은 5점 만점에 2.84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문화 인식 중 개방성, 수용성, 존중성 모두 다문화 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경험은 직접경험과 간접경험만 다문화 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초등학생의 다양한 다문화 경험과 인식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understand how multicultural efficacy is different and to affecting the multicultural efficacy. To achieve the goals, the study conducted surveys to examine an interrelation of multicultural efficacy on 272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Namyangju-si with questionnaire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multicultural 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ored 2.84 on five point scale. Second, the elements that affected multicultural 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clude 'openness', 'acceptance', 'resp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toward multiculture awareness, at the same time, elementary students' indirect experience of multiculture and direct experience also make significant influence. The study suggests to develop multiculture-related educational programs, in order to enhance multicultural efficacy and multicultural awareness of elementary students.

Key Words : multicultural efficacy,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experience, stereotype

1. 서론

최근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지금 시대를 'Rainbow' 시대로 진단하면서 다계층 · 다집단 시대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1]. 2013년 안전행정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외국인 주민 수는 1,445,631명이고, 결혼이민자 수도 2006년 2,834명에서 2013년 11,856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 자녀는 2006년 1,573명에서 2013년 11,574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2]. 특히 2009년에는 다문화 가정 아동 가운데 초등학생이 전체 다문화가정 아동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3].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도가 높아 다문화 수용이 그다지 높지 않다[4].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에서 실시한 국민다문화수용지수(KMAI)는 51.17점으로, 다문화수용성 상위 20%에 속한 국민의 평균치 70.89점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 현대경제연구원 자료(2009)에서도 우리

*Corresponding Author : Mee-Hye Park(Korea Christian Univ.)
Tel: +82-2-2600-2598 email: 9506017@daum.net
Received March 25, 2014 Revised (1st April 8, 2014, 2nd April 18, 2014) Accepted May 8, 2014

나라의 외국문화 개방 순위가 세계 57개국 중 56위로 우리 국민들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6].

이러한 결과는 이주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인하여 그들과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7],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국민들은 아직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다소 저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문제가 증가하자,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중앙 시 · 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전국 다문화 거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한 민족 또는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또래들과 잘 어울리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어 왔다[8].

그러나 그 내용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모든 학생들의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 경험을 담보하지는 않는다[9]. 즉 다문화는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교육내용은 일반가정의 아동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이해하고 보살펴 주어야하는 주체로 묘사되고 있다. 김선영[10]은 2009년 교육과정 2학년의 교과 내용 '다양한 가족' 소주제에서 다양한 가족을 주류가 베푸는 친절과 시혜를 받는 대상과 객체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들이 독특하고 이상하며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편의 타자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족에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가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을 '관심 갖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배려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한정짓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체는 그들 스스로가 아닌 주류의 한국인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소수의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이해와 배려받아 학교와 사회에서 적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배려해야 하는 일반가정의 아동도 다양한 문화의 아동들을 또래 친구로 사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도 아동들의 상황을 구분하여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과 기회를 꾸준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반가정의 아동들은 학교 외 가정에서 부모와 생활을 하게 되는데, 부모의 고정관념이 자녀에게 학습되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생활할 때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 물론 최근 정부에서 다문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힘을 쓰고 있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다문화에 대한 특정한 관념이 성장하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관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부모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자녀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인식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은 부모의 생각과는 달리 성장하면서 인종이나 민족적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을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였다[11]. 따라서 일반 가정의 부모들이 다문화에 대하여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일반 가정의 초등학생이 다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고정관념은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다문화 인식이란 자신과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를 인지한 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다문화 인식은 직접적으로 함께 생활하기도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육과 매스미디어의 노출 등이 영향을 미친다.

앞서 설명한 학부모의 고정관념과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경험은 초등학생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능력을 다문화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다문화 효능감이 높을수록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연구로, 교사의 다문화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아졌다[12-15]. 고등학생은 다문화 대중매체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효능감이 높았으며[16], 초등학생은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이 낮게 나타나 교사들의 올바른 다문화 인식 등으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17]. 그리고 2006년에 이어 2009년 교과과정이 개정되면서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10,18-20]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들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다문화가정의 아동 83%가 초등학생인 현시점과 초등학생이 학교 외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의 고정관념과 평소에 학교나 가정 등에서 경험하는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인식이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가정의 학부모의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와 일반가정의 초등학생의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인식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결과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2.1.1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는 능력이다[21]. 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서 유래되었는데, 개인이 주어진 성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의미한다[22].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이 되었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생활해야 하고, 다양한 문화의 또래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Ramesey & Williams(2003)은 일반 아동들이 다문화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문화 친구들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3]. 따라서 일반가정의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이란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2.1.2 다문화 인식

다문화 인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다양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각기 서로 다른 문화를 인지하고 그 차이를 구별한 것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현재 학습자들이 살아가면서 접하는 집단들의 내부 및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인종, 민족, 문화, 언어, 종교 등의 광범위한 편차를 수용하는 수준을 말하며 이 수준은 지식, 정의, 태도적인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24], 다문화 인식이 높을수록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개방적이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전반적인 다문화 현상에 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image)로부터 비롯된다. 이미지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한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한 인상의 총체라 할 수 있다[25]. 곧 이미지는 감각적인 경험이나 연상을 통해 느껴지는 감각적 인상이며, 한 개인의 과거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이는 곧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이미지로도 적용될 수 있다[26].

2.1.3 고정 관념

고정관념이란 '특정 집단의 모든 성원들은 어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되게 일반화시켜 믿는 신념들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27]. 즉 내용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가 전달되어 우리 자신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Lippmann(1922)은 '특정의 사회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넓게 수용되고 있는 단순화된 고정적인 관념이나 이미지 혹은 과장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매스미디어에 의해 사람들에게 심어진 '마음속의 영상'이며 단순하며 부정확하고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 경험에 의해 획득되며 새로운 경험에 의해 수정되기를 거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28].

이러한 고정관념은 특정 현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며 왜곡된 시선이 행동으로 이어져 고정관념이 더 고정되게 만든다.

2.2 연구 방법

2.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1년 5월에 진행되었으며, 표본선정은 비확률 표집의 유의표집으로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 6학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남양주 지역은 가구공장과 자재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1990년대부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잦은 지역으로 다문화가정이 상당수 분포되어 있다. 또한 설문시 설문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제외하여 총 272부(186쌍)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2.2 측정 도구

①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효능감은 Guyton & Wesche(2005)이 개발한 효능감 척도로, 다문화와 관련된 자신감의 일종으로서 다문화와 관련된 개인의 지각된 능력 수준을 의미한다[21]. 이후에 최충옥 · 모경환(2007)과 임주용(2009)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다문화효능감은 일반기능, 수업기능, 인간관계증진, 다문화가정배려 측면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기능측면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문화적 다양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수업기능은 학생들이 교과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족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다. 인간관계증진은 학생들이 서로 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관용을 형성하는 능력이다. 다문화가정배려는 다문화가정 친구들의 환경이나 가치관, 다양한 능력이나 수준 등을 이

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다[10]. 각 항목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 α=.889로 나타났다.

② 다문화 경험

다문화 경험은 Ward(1996)이 개발한 Cross-Cultural Life Experience Checklist를 이혜진(2009)이 수정 보완하였고, 지은주(2011)가 예비 설문조사를 거쳐 우리나라 다문화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 집단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가족과 친인척, 생활경험 등의 직접경험, 학교와 교육현장 등의 경험, 미디어 등의 간접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3개의 문항으로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다문화 경험의 신뢰도는 Cronbach α=.850으로 나타났다.

③ 다문화 인식

다문화 인식은 Ambrosio(1998)와 Fritz(2001), Munroe & Pearson(2006)의 검사 도구를 기초로 김명희(2009)가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다문화 인식은 다른 문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으며 다른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개방성, 다른 문화를 인정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려는 수용성, 그리고 자신과 다른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인 존중성으로 구분되어 있다. 총 18문항으로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735로 나타났다.

④ 고정 관념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은 김진국(1987)과 김혜숙(1988), 그리고 김영만(2003)이 지역 편견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질 형용사는 기존의 지역감정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형용사들로 ‘지배적이다’, ‘천박하다’, ‘믿을 수 없다’, ‘복종적이다’, ‘무식하다’ 등의 부정적인 형용사 5개와 ‘순수하다’, ‘정이많다’, ‘예의바르다’, ‘따뜻하다’, ‘생활력이 강하다’ 의 긍정적인 형용사 5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고정관념이 높은 것이며, Cronbach α=.632로 나타났다.

2.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18.0을 활용하여,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다른 변수들의 실태 파악을 위해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학부모와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다문화 경험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을 비교하기 위해서 t-test와 Oneway-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4 연구 결과

2.4.1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Table 1과 같이 여자가 145명(78.0%), 남자가 41명(22.0%)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연령은 40대가 107명(57.5%), 30대가 61명(32.8%), 50대 이상이 16명(8.6%)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직업은 주부가 97명(52.2%)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판매직 38명(21.0%), 사무직 33명(17.7%)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소득수준은 200-300만원 미만이 56명(30.1%)와 300-400만원 미만이 51명(27.4%)로 가장 많았으며, 100-200만원미만이 47명(25.3%)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교육수준은 중 · 고등학교졸업이 120명(64.5%), 대졸이 55명(29.6%), 초졸이 6명(3.2%)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trend of the subject in parents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41	22.0
	Female	145	78.0
Age	20 beyond	2	1.1
	30 beyond	61	32.8
	40 beyond	107	57.5
	50 beyond	16	8.6
Occupation	production	38	21.0
	Office	33	17.7
	professional	18	9.1
	housewife	97	52.2
Income	100 under	16	8.6
	100-200	47	25.3
	200-300	56	30.1
	300-400	51	27.4
	500 more than	16	8.6
Educational attainment	elementary	6	3.2
	Mid / High	120	64.5
	University	55	29.6
	Graduate	5	2.7
All		186	100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Table 2와 같이 남학생이 99명(53.2%), 여학생이 87명(46.8%)로 나타났으며, 6학년이 158명(84.9%), 5학년이 28명(15.1%)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은 ‘중’이 96명(51.6%)로 가장 많았

고, '상'이 49명(26.3%), '하'거 41명(2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어 실력은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119명(64.0%)가 가장 많았으며, '전혀 못한다'가 37명(19.9%), '나의 의견 전달 가능'이 24명(12.9%)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trend of the subjec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99	53.2
	Female	87	46.2
Level	5th	28	15.1
	6th	158	84.9
Achievement	High	49	26.3
	Mid	96	51.6
	Low	41	22.0
Foreign language	Not at all	37	19.9
	A Simple conversation	119	64.0
	My opinion delivered	24	12.9
	Fluency in conversation	5	3.2
All		186	100

2.4.2 초등학생이 지각한 다문화 효능감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이 지각한 다문화 효능감은 2.84점으로 보통 정도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항목별로 보면, 문화적 다양성에 대처하는 능력 함양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나는 일반기능측면은 2.78점, 다문화 친구들에 맞는 학습자료 개발 등의 수업기능측면은 2.72점, 다양한 민족 집단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와 서로의 가치관을 인정하려는 인간관계증진측면은 2.93점, 다문화가정의 친구들이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가정배려측면은 3.11점으로 나타났다.

2.4.3 초등학생이 지각한 다문화 경험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이 지각한 다문화 경험은 5점 만점에서 평균 1.65점으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 경험은 세가지 하위항목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 경험이 포함되는 직접 경험은 1.80점, 미디어 등을 통한 간접 경험은 1.43점, 그리고 학교나 교육현장 등의 간접경험은 1.49점으로 전체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4 초등학생이 지각한 다문화 인식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이 지각한 다문화 인식은 평균 2.98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항목별로 보면,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와의 놀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학습하고픈 개방성은 3.01점으로 보통을 보였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때 생활 수용성은 2.70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낮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와 습관에 대한 존중성은 3.12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2.4.4 학부모가 지각한 고정 관념

본 연구에서 학부모가 지각한 고정관념은 2.64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점수로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났다.

[Table 3] Distinction in each variables

Spec.		M	SD
Multicultural efficacy		2.84	0.53
child item	General	2.78	0.56
	Class	2.72	0.59
	Social relations	2.93	0.67
	Considering Multicultural Families	3.11	0.84
Multicultural awareness		2.98	0.42
child item	openness	3.01	0.43
	Acceptance	2.70	0.54
	Respect	3.12	0.62
Muticultural experience		1.65	0.15
child item	Family/life	1.80	0.19
	Media	1.43	0.46
	School/ education	1.49	0.17
Stereo type		2.64	0.49

2.4.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을 학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초등학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One-ANOVA를 실시하였다. 먼저 학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다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보면,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p<.05$), 성별이나 연령, 직업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것이다.

[Table 4] multicultural efficacy in General trend of parents

Spec.		M	SD	t/F
Gender	Male	3.51	0.53	1.42
	Female	3.64	0.50	
Age	20 beyond	4.04	0.18	2.141
	30 beyond	3.52	0.46	
	40 beyond	3.50	0.56	
	50 beyond	3.80	0.52	
Occupation	production	3.49	0.41	0.374
	Office	3.58	0.58	
	professional	3.47	0.62	
	housewife	3.58	0.52	
Income	100 under	3.61	0.54	0.558
	100-200	3.60	0.45	
	200-300	3.46	0.56	
	300-400	3.52	0.52	
	500 more than	3.59	0.67	

또한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적($p<.05$)과 외국어 수준($p<.05$)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성적이 좋을수록, 외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7]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성적이 다문화 효능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같게 나타났다.

[Table 5] multicultural efficacy in General trend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pec.		M	SD	t/F
Gender	Male	3.52	0.56	-0.578
	Female	3.57	0.49	
Level	5th	3.54	0.56	0.005
	6th	3.54	0.52	
Achievement	High	3.71	0.58	4.080*
	Mid	3.49	0.51	
	Low	3.43	0.45	
Foreign language	Not at all	3.33	0.35	3.861*
	A Simple conversation	3.55	0.51	
	My opinion delivered	3.78	0.71	
	Fluency in conversation	3.66	0.67	

2.4.6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의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초등학생의

[Table 6]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efficacy

Spec.		multicultural 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Exp(B)	β	Exp(B)	β	Exp(B)	β	Exp(B)
Parent	Gender	-.057	-.057	.009	.011	.022	.029	.020	.027
	Age	.033	.003	.060	.006	.056	.005	.054	.005
	Occupation	.035	.004	.029	.003	.058	.006	.059	.007
	Income	-.084	-.042	-.065	-.032	-.059	-.029	-.057	-.028
	Educational attainment	.130	.124	.059	.056	.047	.044	.046	.044
Elementary Student	Gender	.063	.022	.119*	.041	.128*	.044	.129*	.045
	Level	-.008	-.012	.022	.033	.038	.058	.038	.058
	Achievement	-.117	-.093	-.056	-.044	-.051	-.040	-.049	-.039
	Foreign language	.157*	.127	.145*	.118	.166**	.134	.165**	.134
Multicultural Awareness	Openness			.463***	.581	.500***	.6285	.499***	.627
	Acceptance			-.204**	-.204	-.213**	-.214	-.213**	-.213
	Respect			.212*	.187	.208*	.184	.209*	.184
Multicultural Experience	Direct					.195*	.558	.199**	.571
	Indirect					-.161*	-.192	-.160*	-.190
	Education/ Volunteer					-.023	-.075	-.024	-.078
Stereo-type								.023	.028
$R(R^2)$		.289(.083)		.599(.359)		.638(.407)		.638(.407)	
F		1.776		8.073***		7.767***		7.253***	

*p<.05 **p<.01 ***p<.001

다문화 인식, 초등학생의 다문화 경험, 그리고 학부모의 고정관념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다.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계적 희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가운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순위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먼저 학부모와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미친 영향(모델1)을 분석하였고, 모델 1에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을 개방성, 수용성, 존중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모델2). 그리고 모델2에 초등학생의 다문화 경험을 직접경험, 간접경험, 미디어 경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모델3), 모델3에 초등학생의 고정관념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모델4).

초등학생의 다문화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먼저 모델1을 보면, 초등학생의 외국어 실력(β=.157, p<.05)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외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모델2는 학부모와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이 더 포함하였는데, 다문화 인식을 하위요인으로 개방성, 수용성, 존중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모델2의 분석결과는 보면,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β=.119, p<.05)과 외국어 실력(β=.145,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의 하위항목 개방성(β=.463, P<.001), 수용성(β=.463, p<.01), 존중성(β=212, p<.05)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문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외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인식은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와의 놀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학습 의욕 등이 높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때는 우리나라의 생활 문화를 습득해야한다고 생각할수록 다문화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습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높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3은 모델2에 초등학생의 다문화 경험이 포함되었다. 다문화 경험은 가족이나 친지 등과 함께 생활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직접경험, 미디어 등을 통한 간접 경험, 그리고 학교나 교육현장 등의 간접경험이 포함되었다. 모델3의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성별(β=.128, p<.05), 초등학생의 외국어 실력(β=.208, p<.01)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문화 인식의 하위 항목인 개방성(β=.500, p<.001), 수용성(β= -.213, p<.01), 존중성(β=.208, p<.05)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초등학생의 다문화 경험은 직접경험(β=.195, p<.05), 미디어 등 간접경험(β=-.161, p<.05)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델4은 모델3에 학부모의 고정관념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학부모의 고정관념은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부모의 고정관념과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경험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다문화효능감과 다문화 인식은 '보통'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부터 시작된 다문화에 대한 교과과정이 다문화 가정 자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다 보니, 반대로 일반 가정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과과정의 점검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일반가정의 초등학생 모두가 올바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또한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교사의 올바르고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교육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

초등학생의 다문화 경험은 가족과 친지, 일반적인 생활 경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디어 등의 간접경험과 학교나 교육현장 등의 간접경험은 일반적인 생활경험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험의 유지뿐 아니라 올바른 다문화 인식이 교육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점검하고, 방송매체 등의 홍보 등을 강화하여 인식을 더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다문화 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남자 초등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에 비하여 다문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다 집중적인 다문화 인식교육을 필요함을 나타

내는 것으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생의 외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다문화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0]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외국어 실력은 단순한 어학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외국 교사와의 교감, 외국문화의 이해 등을 통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편견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9].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외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과과정이 필요하고, 복지기관 등의 저비용으로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4는 개방성($p< .001$), 수용성($p<.01$), 존중성($p<.05$)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를 교육하는 교사의 올바른 다문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와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넷째, 초등학생의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효능감에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4에서 직접 생활($p<.01$)하거나 미디어 등의 간접 경험($p<.05$)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 교육이나 봉사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디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으로 초등학생에게 쉽고 치근하게 활용되는 매체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내용의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부모의 고정관념은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3]의 부모를 비롯한 성인이 편견을 만들어내고 가르쳐, 자녀들도 사회적 편견적 태도에 빠져들고 만다는 주장과 함께, [32]의 부모들이 이미 갖고 있는 전형적 태도들이 자녀들의 편견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이유는 과거에는 가정과 학교의 교과목 위주였다면, 교육 과정에 다문화 도덕 부분이 더해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공익 광고 등을 통하여 가정 외에서의 교육이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의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와 그에 따른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남양주시로 국한되어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초등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을 구분하여 비교 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설문에 응답한 초등학생 학부모의 80%정도가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 학부모라의 응답이라고 볼 수 없어 추후 연구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References

[1] V. Washington, K. D. Andrews, *Children of 2010,* Washington, D. C.: NAEYC, 1988.

[2] www.mospa.go.kr(2014. 1. 25)

[3] J. M. Kang, “multicultur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monthly publication new education,* No. 7, 18-21, 2010.

[4] I. J. Yoon, Y. H. Song,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the former part-Symposium Sourcebook,* 579-591, 2009.

[5] www.kwdi.re.kr(2014. 2. 2)

[6] www.hri.co.kr(2014. 2. 2)

[7] J. H. Park, J. K. Chung, “Acculturation and Identity of Immigrant W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Vol.12, No.4, 395-432, 2007.

[8] www.moe.go.kr(2014. 2. 5).

[9] J. A. Banks,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ical development, dimensions, and practice.* In J. A. Banks & Banks(Eds.),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2nd ed.), 2004,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10] S. Y. Kim, Critical analysis on multicultural curriculum and its implementation: Focus on the theme of ‘diverse families’ from a case of South Korea.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013, 31(4). 111-140.

[11] S. H. Ha, “Study of the Parent’s Perception and the Childcare Practice About the Multicultur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isty, 2000.

[12] S. Mulder, K. Tyler, & T. W. Conner, “Teacher Efficacy: How Do Teachers’ Attitudes Affect their Efficacy in Teaching Culturally Diverse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WERA Annual Meeting, Westin Great Southern Hotel,

Columbus, Ohio Lnline, 2008.

[13] C. O. Choi, K. W. Mo, "Investigating Multicultural Efficacy of Teachers in Gyeonngi Province,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2007, 39(4), 163-182.

[14] J. H. Ok,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ulticultural Efficacy of Teachers, 한국교원교육연구, 2009, 26(4), 191-221.

[15] J. C. Kim, B. S. Jang, "A Study on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Multicultural Attitude and Efficacy,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2010, 42(3), 39-60.

[16] J. Y. Lim, Y. J. Oh, "Perceptions and Efficacy of the Multiculture Among Adolescents",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8, No.10, 143-58.

[17] Y. J. Jo, "The Effects of Perceptions of Multiculture on Efficiency Esteem of Multicultur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23, No.3, 43-58, 2010.

[18] J. C. Jeon, A Study on the Curriculum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for the Viewpoint of the Multicultural Human-Rights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5(1). 103-124, 2013.

[19] Y. M. Lee, A Basic Study for Curriculum Development of Elementary Multicultural Moral Subject. *Elementary Moral Education*. 41, 167-190, 2013.

[20] E. M. Guyton, M. W. Wesche, "The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Development, Item Selection, and Reliablity", *Multicultural Perspective*, 7. 4, 21-29, 2005. DOI: http://dx.doi.org/10.1207/s15327892mcp0704_4

[21] E. M. Guyton, M. W. Wesche, "The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Development, Item Selection, and Reliability", *Multicultural Perspective*, 7. 4, 21-29, 2005.
DOI: http://dx.doi.org/10.1207/s15327892mcp0704_4

[22]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1977. New York: W. H. Freeman & Company.

[23] P. G. Ramsey, L. R. Williams, *Multicultural education: A resource book.* New York: Garland.

[24] J. A. Banks, *An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4thed.),* Boston: Pearson Education Allyn & Bacon, 2008.

[25] D. K. Ahn,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Belief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East Asian Studies,* 26, 2, 203-219, 2009.

[26] D. S. Hong, 『Introduction to Psychology』. Seoul Bakyoungsa. 1985.

[27] G.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s,* Cambridge. Mass: Addison-Wesley. 1954.

[28] J. H. Kim, J. H. Seo, "The Media Use and Stereotypes: The seeing and Hearing of Janpanese TV Dramas have infulence on Stereotypes abouyt Janpans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0, No.4, 35-46. 2006.

[29] S. H. Ji, "The effects of parents' attitude on multi-culture on the multi-cultural 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welfare & policy, Kwangwoon University, 2011.

[30] D. K. An,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the Unification and the Dual Structure of National Image of North Korea", *The Korea Civic Ethics Society*, 205-224. 2009.

[31] L. Derman-Spark, The Task Force. *Anti-bias curriculum Tool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D. C.: 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989.

박 미 혜(Mee-Hye Park) **[정회원]**

- 2003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임상사회사업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0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9년 3월 ~ 2011년 2월 :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 2012년 9월 ~ 현재 : 그리스도대학교 계약학부 교수

<관심분야>
빈곤, 사회복지